

2027학년도 6월 모의수능
공통문항 해설

[비문학]

[1~3] 학습을 위한 읽기

1. ①

[정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숙고하기’는 글을 읽은 후에 행하는 활동이며, 글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오답 해설]

- ② 1문단에 따르면 SQ3R은 ‘학습을 위한 읽기’의 방법 중 하나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읽기’를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2문단에 따르면 SQ3R의 최종 과정에서는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본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관점 바꾸기’를 통해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게 되며, 그것을 통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2. ⑤

[정답 해설]

- ⑤ 이는 글을 저자의 입장에서 다시 써 볼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이는 SQ3R 전략의 암송하기에 대응한다.
② 이는 SQ3R 전략의 질문하기에 대응한다.
③ 이는 SQ3R 전략의 훑어보기에 대응한다.
④ 이는 본문에 제시된 ㉠의 관점 바꾸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지이다.

3. ④

[정답 해설]

- ④ 3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제목이나 요약문을 활용하면 이에 도움이 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독자의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면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③ <보기>에 따르면 C그룹에 제공된 질문은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독자는 내용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다.

[4~9] 조선의 노비제에 대한 개선 방안

4. ③

[정답 해설]

- ③ (가)에는 노비제에 대한 이익의 견해가 제시되었고, (나)에는 민권에 관한 논의를 19세기 말부터 일제시대까지 흐름으로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특정 학자의 의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가)에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나)에는 개화파의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가)에는 노비에 대해, 신분 질서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의견과 연결시킨 의견이 모두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에 민권 개혁에 대한 부당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가)에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나)에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이 이후의 인권 운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했다.

5. ②

[정답 해설]

- ② ㉠은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이다. 즉, 인식 주체가 노비가 아니라 양반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양반들은 충성스러운 노비를 칭송했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온정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의견이 있었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양반들은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을 드러내며 그들의 애환에 관심을 가졌다. 애환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었다.

6. ①

[정답 해설]

- ① ㉠은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사회의 전 구성원이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등,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을 생각하였다. 한편, ㉡는 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았으며,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했다.

[오답 해설]

- ② ㉡는 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③ ㉡는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민을 제시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했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④ ㉠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⑤ ㉠은 천명과 성명을 자연 이치로 언급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7. ②

[정답 해설]

-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은 차별받던 백정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형평사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였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의 기반에는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은 교육 활동과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 위주였다. 또, 사회적 대우 등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는 차이가 있다.
 ④ (나)의 5문단에 따르면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된 이후 형평 운동은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또, 형평사의 개칭과 교육을 위한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 실현 노력은 인과 관계에 있지 않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은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지던 것으로,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백정은 차별받던 존재했다. 따라서 일제의 억압이 백정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8. ⑤

[정답 해설]

- ⑤ <보기>에 제시된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가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의 김윤식은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② <보기>의 해당 입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 모두 법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보기>의 功利는 ‘공명과 이익’이라는 뜻으로,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공리와는 차이가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노예 무역이 가능했으므로, 노예는 매매의 대상이었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다.
 ④ <보기>에 나타난 노예 해방론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에 근거하고 있다. (가)의 이익 역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했다.

9. ④

[정답 해설]

- ④ ㉠와 이 선지의 ‘두다’ 모두 생각 따위를 갖는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선지의 ‘두다’는 생각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② 이 선지의 ‘두다’는 설치한다는 뜻이며,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이 선지의 ‘두다’는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재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⑤ 이 선지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이나 근거를 뜻한다. ㉠와는 차이가 있다.

[10~13]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표현의 자유

10. ②

[정답 해설]

-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론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점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이 대조되고 있으나, 이를 합치지는 않았다.

11. ③

[정답 해설]

- ③ 2문단에 따르면 이용자는 허위 광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이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성분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은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정보 비대칭의 정의상 정보 비대칭이 없다는 뜻이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동 규제에 한 축이다.

12. ⑤

[정답 해설]

- ⑤ ㉠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이 주장하는 공동 규제는 정부의 사후 규제를 뜻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표현에 있어 정부의 개입 자체에 반대한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 ③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적게 공급되는 것이다. 선지의 단어 순서가 바뀌어 있다.
- ④ ㉡은 정부의 사전 차단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 사전 차단을 하는 주체는 민간이며, 그것을 필요조건으로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3. ⑤

[정답 해설]

- ⑤ 5문단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는 ㉢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사용여부 명시를 강제할 뿐이다. A는 사업자가 아니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사용여부 명시를 강제할 뿐이다. 갑은 생성형AI를 사용했을 뿐, 갑의 서비스가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법은 ○○방식의 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다수 의견의 취지와 충돌한다.
- ④ △△법 자체가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소수 의견의 취지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14~17] 라플라스 법칙

14. ⑤

[정답 해설]

- ⑤ 4문단에 제시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은 잉크를 분사한다. 작은 잉크 방울을 합치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3문단 내용으로 낚시를 시도한 것 같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표면 장력은 유체가 구형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를 이용하여 펴는 호흡을 한다. 참고로,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선지 진술은 참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춘다. 그리고 지질은 계면활성제의 구성 성분이다.

15. ④

[정답 해설]

④ ㉠은 크기만 다르고 구성 물질이 같은 두 기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문단에 따르면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기에, ㉠의 상황에서 두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은 거의 동일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라플라스 법칙에 따라 '내부 압력 - 외부 압력 = $k \times (\text{표면 장력} / \text{반지름})$ '임을 알 수 있다. (단, k 는 비례 상수) 즉, 반지름이 큰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외부 압력 차이는 기존보다 더 작다.

[오답 해설]

- ① 반지름이 작은 방울의 내외부 압력 차이는 반지름이 큰 방울보다 크다. 또, 2문단에 따르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 ② 유체에는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 ③ 압력이 동일하면 공기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내부 압력 = 외부 압력 +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다. 즉,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항상 같다.

16. ③

[정답 해설]

③ 5문단에 따르면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표면장력 - 밀도 - 노즐 지름의 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밀도가 두 배가 되고 노즐 지름이 절반이 되면 곱이 일정하므로, 오네소르게 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구입 당시에는 파란색 잉크와 빨간색 잉크가 모두 정상 출력되었으므로, 둘 다 오네소르게 수가 0.1과 1.0의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빨간색 잉크의 점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오네소르게 수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해결책은 오네소르게 수를 낮추는 것이 더 높이는 것이 아니다.
- ④ 파란색 잉크는 차이가 없으므로 구입 당시나 지금이나 오네소르게 수가 정상 범위에 있다.
- ⑤ 잉크의 점도가 높아지면 오네소르게 수는 높아진다. 이 경우 6문단에 따르면 잉크가 토출되지 않는 것이지, 위성 액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17. ①

[정답 해설]

① 올라온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를 함축하지 않지만, ㉠의 '발생하는'은 질적인 차이를 함축한다.

[문학]

[18~21]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18. ①

[정답 해설]

① 본문에 따르면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즉, 영장이 나온 것이 마을을 떠난 원인이며,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② 본문에 따르면 용팔이에게서 떠나간 이후에 소식이 없다.
- ③ 본문에 따르면 모랑댁은 두칠이를 목매어 부르다가 죽었으며, 두칠이는 떠나간 이후로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 ④ 본문에 따르면 양복쟁이는 마을에 온 후 아무개의 집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 ⑤ 본문에 따르면 갑분이는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불쌍하게 되었다고 가슴 아파했다.

19. ②

[정답 해설]

② 영장을 들고 온 남자를 보고 ㉠의 일을 떠올려보는 부분에서, ㉠ 역시 영장이 나와 남성이 징집되었던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당시에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③ ㉠에서 적대적 인물은 영장을 들고 온 양복쟁이이다. 중심 인물의 그들에 대한 반감은 유지되고 있다.
- ④ ㉠에서는 오히려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에 의해 강화되는 상황이며, 그렇게 발생한 위기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 ⑤ ㉠를 끊은 것은 중심 인물이다.

20. ①

[정답 해설]

- ① “안 돼!”라고 말한 후, 주먹을 불끈 쥐는 부분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은 상대방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어금니가 떨어진 것은 상대방이 또렷하게 보인 것의 결과이다. 인과적 추론을 묻는 문항이다.
- ③ 이항 대립을 묻는 문항이다. 손가락이 힘없이 풀리는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과 같은 범주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쪽이며,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대립적이다.
- ④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이후에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들었으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는 쪽이고 희안한 생각이 든 것은 적대적 행동을 하는 쪽이다.
- ⑤ 희안한 생각이 든 후 “웁지!”라고 말하며 궁둥이를 탁 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21. ③

[정답 해설]

- ③ 삼바우는 ㉠의 시점에서 이미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우리’라는 표현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인물의 유대감을 생각할 수 있다.
- ② 공간적 표현이 나타나며, 이는 인물의 시선에 따른 것이다.
- ④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끼는 것이며, 이는 의기양양함과 이어질 수 있다.
- ⑤ 인물 내면의 목소리도 제시되었고, 확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이 모두 제시되었다.

[22~27] (가) 김명인, 「그 나무」 / (나) 김기택, 「나무」 / (다) 정지용, 「노인과 꽃」

22. ①

[정답 해설]

- ① (가)는 꽃잎을 이미 피운 벚꽃과 아직 꽃피우지 못한 나무의, (나)는 겨울과 여름의, (다)는 청춘과 노년기의 대비를 제시한다.

[오답 해설]

- ② (가)에는 대상의 변화가 없다.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없다. (다)에는 공간의 이동이 없다.
- ③ (가)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 (나), (다) 모두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⑤ (가), (나), (다)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③

[정답 해설]

- ③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간 것은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이다. 이는 추위의 난폭한 힘이 아니다. 또,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은 맥락상 나이테인데, 화자는 이를 빠르고 날렵하다고 인식하며,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나무의 무늬를 보고 그것이 나무에게 힘겨웠던 겨울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추위의 난폭한 힘이 수액에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④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쳤을지 화자는 생각하고 있다.
- ⑤ ‘흘러다니고 있다’는 나무의 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뜻이다.

24. ⑤

[정답 해설]

- ⑤ (나)의 ‘귀기울임’은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이 한 것이지, 화자가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전망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 ‘귀기울임’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볼 수도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나무를 보고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나)의 무늬는 일상의 사물을 본 것에 해당한다.
- ③ (가)의 화자는 명을 보고 ‘안쓰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나무에 작용한 추위의 난폭한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도 푸릇한 잎

새를 매달지 생각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푸르고 진한 빛'으로 고통을 겪은 결과가 아름다운 나이에 무늬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5. ④

[정답 해설]

④ '꽃이 난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필자는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② 본문의 '쇠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뵈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웁니다'는 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③ 꽃봉오리에 대해, 필자는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⑤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이라는 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다.

26. ②

[정답 해설]

② ㉠은 화자가 겪은 시간을 의미하므로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의 시간이 아니다. 경험의 주체와 시간적 관계 모두 틀렸다.

[오답 해설]

① 며칠동안 벚꽃은 이미 꽃을 활짝 피웠다 지운 이후이다.

③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는 것이 가능했던 이후 겨울이 온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봄이 온 상황이 제시된다.

⑤ '해마다'라는 표현은 계절의 순환성을 환기한다.

27. ②

[정답 해설]

② ㉢는 앞줄 아름답드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은 노인의 노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생의 마지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③ (가)의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의지를 가졌는지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는다. 또, (나)의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고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④ (가)에 늦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려는 의지 자체가 제시되지 않는다.

⑤ (가)의 늦된 나무는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도 없다. (나)의 노인 역시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고 서술되지 않는다.

[28~31] 「홍길동전」 - 시험지에 필자 미기재됨

28. ③

[정답 해설]

③ 길동은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길동은 승려들을 모이게 했다.

② 길동은 모래를 깨물었다.

④ 도적들은 길동의 계획에 따라 절에 들이닥쳤다.

⑤ 도적들은 계획대로 재물을 실어 날랐다.

29. ③

[정답 해설]

③ ㉠가 처한 군사적 상황은 울도국 왕에게 격서로 전해지고 있다. ㉢에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에는 재물이 많이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역시 살림이 넉넉하다고 제시된다.

② ㉠은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공격을 받고 있다.

④ 도적과 길동은 ㉠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탈취하려 한다.

⑤ ㉠에는 왕과 신하가 있으므로, 위계가 존재한다.

30. ④

[정답 해설]

④ 길동은 관군에게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승려인 척 하였다. 길동의 움직임 자체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길동의 행위로 인해 안전한 곳으로 도적들과 재물들을 옮길 수 있다.

② 길동은 승려의 차림으로 관군을 향해 소리친다.

③ 길동은 도적들에게 남쪽 대로로 가라고 이야기한

후, 관군에게는 도적들이 북으로 갔다고 이야기 했다.

- ⑤ 길동이 속인 결과 재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으로 축제까지 벌인다.

31. ⑤

[정답 해설]

- ⑤ 문무제신은 '패하면 부끄러우니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알아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길동은 율도국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에 따르면 욕망의 실현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길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소원이며, 이는 본문에서도 제시된다.
- ③ 본문에 따르면 길동은 성탕과 무왕의 이야기를 근거로 정벌이 천리에 뒤흔힌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하늘의 뜻으로 연결할 수 있다.
- ④ 길동이 굳이 '천명'을 이야기한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하늘의 뜻으로 연결할 수 있다.

[32~34] (가) 작가 미상, 「만전춘별사」 /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 / (다) 이정보, 「임이란 회양금성」

32. ⑤

[정답 해설]

- ⑤ [A]에서 화자는 '얼어 죽더라도 오늘 밤이 늦게 지나가라'고 기원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경경 고침상, 즉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를 보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제시되는 공간은 '정 둔 오늘 밤'의 공간이다. 그것이 원하는 공간의 조건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통해 도화를 볼 뿐, 임에게 속마음은 전달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화자는 지금 임과 떨어져 있다.
- ③ [C]에서 화자가 변함없는 사랑을 임에게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변함없는 살사랑

을 바랬을 뿐이다.

- ④ [C]의 화자는 슬퍼하고 있을 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33. ⑤

[정답 해설]

- 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화자의 시름이다. 이는 화자와 분리되기를 바라는 존재이며, 화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이 행위는 연속적이다.
- ② 강물은 시적 공간이며, 이는 '푸른'으로 서술된다.
- ③ '풍당'은 음성 상징어이며, '풍당'에 비해 무게감이 느껴진다.
- ④ '띄어 두면'은 가정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시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34. ④

[정답 해설]

- ④ (가)의 '소춘풍'하는 '도화'는 임과 있는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즉, (가)의 화자는 임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다. (다) 역시 화자와 떨어지기 싫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길기를 바라는 이유는 임과 더 오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② (나)의 시적 대상은 '시름'으로 관념적 대상이다. 이것에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다)의 '침녕쿨'은 화자가 되고 싶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삼사월'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시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선지에서 언급한 것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소 차이가 난다.